

■ 중국학자 초청특강 ■

## 중국의 새질서 한국 그리고 제주도

1993. 11. 18. 목 13:00~16:00  
사범대학 3323 세미나실

###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국 -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 발표: 王 珏  
중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 위원(현)  
중국시장경제연구회 회장(현)  
중국〈자본론〉학회 회장(현)  
중국 공산당 학교 체제개혁연구소장(현)
- 저서: 〈자본론 소개〉 〈정치경제학개론〉 〈금융시장연구〉

1978년 중국정부는 개혁, 개방정책을 결정했다. 개혁정책은 기존의 계획경제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개방정책은 기존의 폐쇄정책을 버리고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11기 3차 중국공산당 전원회의(삼중전)에서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15년이 흘렀다. 15년동안 중국정부는 정치, 경제, 교육, 과학분야 등 광범한 영역에서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개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사회주의 공유경제체제를 공유제를 기반으로 하고 공유제의 장점을 살리는 가운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혁추진결과 1978년 이전까지는 중국기업의 90%이상의 국유기업이었던 것이 현재는 40%선까지 낮아져 있다. 미국유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자원이 분배되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을 통해 자원을 분배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가 가격체제의 개혁이다. 생산수단의 경우 90%이상, 소비품의 경우 70% 이상을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했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이 추진된 이후에는 생산수단의 70~80%, 소비품의 경우 95%정도까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세번째는 전통적인 경제운영체제의 개혁이다. 경제의 운영, 돈의 흐름 등이 종전에는 완전히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지금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에 의해 자원이 분배되고 생산, 경영활동이 조정되고 있다.

네번째는 기업제도의 개혁이다. 종전에는 정부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일종의 국가부속기관이었던 국유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개혁을 통해서 정치와 기업이 분리돼 현재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생존, 발전하는 경제기구로 전환됐다. 기업의 이같은 발전은 권리하방(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에 최대한의 자율을 부여하는 것), 생산지급도급제도, 주식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 정착돼 왔다.

다섯번째는 분배원칙의 개혁이다. 종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평균주의가 원칙이었다. 즉 다같이 먹고 똑같이 재산을 분배하자는 원칙에 의해 경제가 움직였다. 그러나 개혁이후에는 부분적으로 먼저 잘살게 되고 잘사는 이들이 못사는 다수를 이끈다는 식으로 움직이로 있다. 이 과정에서 공평과 효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효율을 앞세우고 공평을 보살핀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발생하기 쉬운 부자와 빈자의 2급분화를 막기위해 세금,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15년간의 개혁을 통해 중국경제는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다. 최근에 열렸던 14기 삼중전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중국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부족한 점들도 지적됐다. 생산요소의 시장이 아직 원만히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 기업제도의 재산권이 불투명하다는 것,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14기 삼중전에서는 이같은 점들을 지적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개혁조치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개방정책 또한 더욱 폭넓게 실시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과 교류, 협력하고 특히 인접국가인 한국과 교류를 확장자는 의견이 재시됐다.

다음으로 중국개혁의 발전과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겠다.

중국은 농민이 전체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국가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발전은 농업발전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78년도에 11기 삼중전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공작의 초점을 경제발전엔 투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구호도 내걸었다. 농촌개혁의 주요 내용은 인민공사제도를 타파하고 가구단위로 생산도급제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농촌의 모든 가구는 완전독립적인 경제조직으로 전환됐다. 결과적으로 농촌노동력이 효과적

으로 활용됨으로써 3년도 안돼서 알곡생산량이 배로 증가했다. 동시에 '향진기업' (일종의 중소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발생했다. '향진기업'은 약 8년동안의 기간에 중국화폐로 1천억~8천억이라는 높은 생산율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공업생산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국은 농촌개혁을 통해 자연경제에서 상품경제로 경제체제를 전화시켰고, 80년대로 들어서면서 식량난을 완전히 해결했다. 전세계 인구의 1/5의 밥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의 현대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의미와도 같다.

농촌경제의 발전은 도시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도시개혁의 중심은 국유기업의 개조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주식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유, 사유, 민간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기업개혁을 중점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금세기 말에는 중국의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정착될 것이다. 시장경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세계 각 국과 동일한 제도에서 경쟁·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중국의 궁극적인 개혁목표가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해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려는 것이다.